

단단한 서평쓰기

서광선

이화여대 교수·신학

“이 책은 좋은 책입니다”는 말을 듣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나도 《출판저널》의 꽤 오랜 독자이지만, 그 많은 훌륭한 서평 중에서도 ‘이 책은 좋은 책’이라고 단적으로 말하는 서평을 보기도 드문 것 같다.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책 가운데도 여러가지가 있으니 책 나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학술 서적을 가지고 이 책은 좋은 학술서적이라고 할 때에는 새로운 이론을 제기했다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이유를 제시할 수도 있다. 같은 이론, 같은 사실을 가지고 서도 그 기술하는 방법이라든가 문장이 명쾌하고 알기 쉽게 되어 있으므로 좋다고 할 수도 있다. 한편의 책의 내용을 평할 때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든지 논리의 일관성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요사이 서평을 읽다 보면, 한편의 책을 쓰게 된 동기나 배경 같은 것을 열거하고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아직 읽지 않은 사람에게 한 권의 책을 알리는 일, 책의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출판사를 대신해서 책소개하는 정도를 ‘서평’이라고 생각하는 풍토가 생긴 것 같다. 그런 서평도 필요하겠지만, 좋고 나쁜 책을 가려내 주는 서평이 필요할 때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베스트 셀러’라는 광고를 읽고 책을 사는 수도 있지만, 광고와는 관계 없이 단단한 서평 한편을 읽고 사는 수도 있는 것이다. 친구들이 책을 권할 때는 분명하게 “그 책 참 좋더라,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하든가 “나는 그 책을 읽고 한국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어” 같은 강한 말을 들으면 그 책을 빌리든가 사서 읽게 되는 것이다.

대학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필독 도서를 권하면서 사라고 하고,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시험을 주겠다고 할 때는 대부분 자신들이 읽은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한 학문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대학마다 교수들이 권하는 책들은 전통적으로 읽게 하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 최신 학문 분야의 서평을 읽고 좋다는 책을 골라서 자신들이 읽고 학생들에게 권하는 일은 별로 흔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니까 한편의 책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출판되었다는 정보와 더불어 그 책의 가치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평가하는 서평이 필요한 것이다. 정확한 서평 없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정확한 정보 없이 정확한 지식의 전달이란 불가능하다. 학문의 침단을 가기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권위 있는 학자가 쓴 서평이라고 모두 다 믿을 만한 것은 못된다. 특히 우리의 풍토에서는 선배 학자가 펴낸 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서평을 썼다가는 학계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터부 아닌 터부’가 있고, 후배학자의 저작에 대해서 혹평하는 것은 그 제자를 매장하는 것이고 자신의 얼굴에 침뱉는 일이라고 꺼려 한다. 게다가 한편의 단단한 서평을 쓴다는 것은 한편의 논문 쓰기 만큼 공이 들고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도 대학에서나 일반에서 그 업적을 별로 평가하지 않는다.

한편의 단단한 서평을 위해서 책 쓰는 사람들, 책 내는 사람들, 그리고 책 읽는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은 시간과 재력을 투자해야 한다. 서평을 써야 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괴롭힐 때는 이미 지나간 것 같다.

권두 인터뷰 2 반백의 노학자가 지닌 ‘진리찾기’의 꿈
《이성은 죽지 않았다》 펴낸 박이문 교수

초점 3 세계적 석학, 유명 저자들 잇따라 내한

집중 취재 4 독자사랑 한결같은 책문화의 정수들
수십만부의 발행부수 자랑하는 스테디셀러들

출판계 소식 5 문화유통복스 출범·외

특집 / 과학과 문명 6 철학은 과학기술 시대의 ‘등대’ - 신중섭

8 기술문명의 미래는 유토피아인가 - 김환석

10 21세기에 등장할 과학의 첨단 쟁점들
복잡성의 과학(박형규)/신경과학(서유현)/컴퓨터과학
(조환규)/우주과학(채연석)/환경과학(최재천)

책갈피 산책 7 《프로이트를 만든 여자들》을 읽고 - 김정란

9 《놀라운 가설》을 읽고 - 김정일

얼굴 14 과학기술도서상 번역상 받은 장희의 교수

과학저술인협회 번역상 받은 이필렬 교수

출판 화제 15 문학 속에 이식된 과학적 진리와 상상력

과학 시평 16 과학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 현원복

21세기 출판주역 17 컴퓨터 전문출판사 ‘정보문화사’ 이상만 사장

리포트 18 최후의 날에도 가장 든든한 벗 - 움베르토 에코
국제출판협회 총회 개막식 기조연설

해외신간 리뷰 22 과학의 합리성에 관한 도발적 경고 - 이봉재

정보 라이트 23 번역물찾기 - 조승훈

책과 영상 24 ‘검은 것이 아름답다’

재미있는 기획산책 25 ‘이코노미스트’의 포켓판 경영서 - 장익순

종합 서평 26 일상 속 삶과 상처의 풍경 - 전승주

서평 27 강용권 《한국민속문화 연구》 - 김선풍

최협 외 《호남사회의 이해》 - 지병문

28 포스터 《환경혁명》 - 양운진

스튜어트 홀 외 《현대성과 현대문화》 - 곽동훈

29 안치운 《연극제도과 연극읽기》 - 윤진현

이 책 그 사람 30 《역사에세이》 펴낸 정옥자 교수

《풍요로운 사회 가난한 학교》 외 펴낸 이인호 대사

31 《동화로 엮어가는 쉬운 글쓰기》 펴낸 김병규씨

새책 흐름 32 시인의 독특한 이력과 삶의 응시·외 / 문학·어린이

34 새책 속으로 / 38 새로 나온 책

48 출판인에게 띄우는 편지 - 이중한

표지 사진 / 김지옥(관련기사 4면)